

김 정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정서 순화를 위한 미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미술활동에 내재된 심리치료요인을 중심으로-

200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김 민 경

정서 순화를 위한 미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미술활동에 내재된 심리치료요인을 중심으로-

김 정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김 민 경

인 준 서

김민경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미술은 인간의 많은 부분을 반영하는 표현방법 중 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미술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자신과 관련된 시대의 사건이나 사실을 전달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미술이 가지는 표현성은 언어나 문자로 표현하기에 한계가 있는 감정이나 생각, 느낌을 전달하기에 적절한 방법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술은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고 표현된 정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며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기 위한 방법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대인들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심리적 갈등이나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학교현장의 청소년들은 심리적, 정서적 불안정을 표출하고 있다. 즉, 청소년들에게 자기표현의 배출구와 다양한 형식의 정서적 순화방법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유로운 자기표현을 통한 정서순화의 방법으로 미술활동은 매우 의미 있는 행위이다.

창의적인 미술활동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고, 외부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고 치유할 수 있다. 즉, 미술활동에 내재된 치료적 접근방법을 통해 교육현장에 활용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은 미술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미술활동에 내재되어 있는 치료적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있다. 즉, 분석하고 적용하여 학생들의 정서순화에서의 미술활동의 활용과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서론에서는 미술활동에 내재된 치료적 특성을 활용한 미술교육의 연구목적을 제시하고, 미술교육에서 학생의 심리적 정서순화를 위한 미술치료의 적용을 연구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본론에서는 첫째, 예술과 정서의 관계에 대하여 정신분석학적 측면을 고찰하였고, 예술의 정신적 영역 안에서 예술의 정서순화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다.

둘째, 미술활동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미술활동을 통한 치료적 적용을 통해 미술교육에서 나타나는 치료적 의미와 효과성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셋째, 미술교육의 영역별 내용구성에 심리 치료적 요인을 적용해 봄으로써 미술교육과 정서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정서순화를 위한 치료적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함으로써 미술교육 현장으로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결론에서는 미술치료 프로그램들의 분석으로 치료적 미술기법과 매체가 기존의 미술활동과는 다른 상징적 의미와 승화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술교육에 치료적 적용은 복잡한 현대사회의 청소년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순화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연구 확인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예술과 정서	3
1. 예술의 정신적 영역	3
2. 예술의 정서순화 기능	5
III. 정서순화로서의 미술활동	10
1. 미술활동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	10
1) 감성발현에 의한 정서순화	10
2) 감성발현의 심리 치료적 영향	11
2. 미술활동의 치료적 적용	13
1) 미술치료의 이해	13
2) 미술교육에서 치료적 의미	17
3) 미술교육에서 치료적 효과성	19
IV. 정서순화를 위한 치료적 미술교육	22
1. 미술영역별 미술치료 프로그램	22
1) 치료도구로서의 미술기법	22
2)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종류	28
2. 정서순화를 위한 치료적 미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33
1) 치료적 미술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지도안	33
2) 미술치료에서 미술교사의 역할과 학습자의 자세	43
V. 결론	47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1 미술영역별 미술치료 프로그램	29
<표>-2 자아개념 프로그램의 예	30
<표>-3 무의식적인 표현 프로그램의 예	31
<표>-4 감정을 표현하는 프로그램의 예	32
<표>-5 프로그램의 기본 내용체계	33
<표>-6 미술과의 LT 모형의 프로그램 순서도	34
<표>-7 난화를 이용한 프로그램	37
<표>-8 콜라주를 이용한 프로그램	39
<표>-9 입체표현을 이용한 프로그램	41

I. 서론

사회가 급변하고 다원화되면서 인간의 심리적 문제나 장애 행동의 유형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로 인해 심리적 안정을 위한 활동으로 예술행위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고 있다. 예술은 자유로운 표현활동을 통하여 인간의 불안과 갈등을 해소 시켜주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그러므로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인간에게 예술은 심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인간의 복잡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작활동을 통한 예술교육이 필요하다.

예술교육의 중요성은 교육학이나 심리학의 발달과 함께 예술교육의 대가들에 의해 그 가치가 새롭게 대두되었다. 그 중 미술교육은 사회 안에서 자아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세상을 보는 눈(시지각)을 길러주며, 개인의 개성과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미술활동은 심리적인 욕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써,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표현과 감성적 본능을 북돋아 주며, 정신적인 발달을 도와준다. 이러한 점에서 미술교육은 정서를 순화하고, 더욱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으로 발전하여 조화로운 인간 형성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오늘날 학생들은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심리적 갈등이나 정서적 어려움을 갖게 되었다. 또한 변화가 빠르고 복잡해질수록 정서적 불안을 느끼게 되며, 이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학교와 교과서와 교육과정이라는 정형적인 구도가 존재하는 가운데, 특히 미술과 같이 창조적인 활동이 수업의 중심이 되는 교과에서는 인간의 정서와 창조교육에 영향을 주며, 지식위주인 오늘날의 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교과역할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술교육은 미술의 언어적 기능과 시각적 진술의 소통체

계로서 미술치료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이 강조된다. 미술치료는 미술 작업을 통하여 정서적 갈등과 심리적인 증상을 완화시키고 원만하고 창조적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심리치료법이다. 대상의 미적표현으로부터 무의적 세계를 파악하고, 나아가서 미적 활동을 통해 심리적 갈등이나 정서적 어려움을 감소시키는 정화의 기능으로 발전된다. 미술치료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론적인 지식, 예술의 심리학, 창작활동, 내면생활을 점검하는 교육 분석 등을 병행해야 한다.

근래 현장의 미술교사들은 기존의 미술교육 외에도 미술을 통한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경험한다. 기능적인 미술기법의 훈련이 아닌 미술을 통한 정서적 문제의 해결이 요구된다. 이는 바로 미술교육과 미술치료의 상호적 관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자는 미술활동에 내재된 치료적 장점을 활용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미술수업에서 교사 즉, 안내자의 입장으로 미술표현활동에서 학생의 심리적 정서순화를 위해 미술치료적인 측면에서 어떤 적용이 가능하며, 미술교육에서 미술치료를 활용한 학습프로그램의 적용이 학생들의 정서순화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문헌 및 자료를 바탕으로 예술과 정서의 관계를 통해 예술의 정신적 영역과 예술의 정서순화 기능을 알아본다. 미술활동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미술치료의 이론고찰을 통해서 미술활동에서 치료적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고, 미술교육에서 치료적 의미와 효과성에 대해 모색해 본다. 그리고 현재 활용되고 있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종류를 알아보고, 그중 정서순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정서순화를 위한 치료적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였다.

II. 예술과 정서

1. 예술의 정신적 영역

세계와 인간의 유대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변화해 왔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의 모습을 한 세상에서 살고 있고, 다시 그 속에서 개개인은 다음 세상을 만들어 간다. 심리학자 칼 융(C. G Jung, 1875-1961)¹⁾은 “우리의 문화 속에 도사리고 있는 야만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세계를 이루고 있는 개인의 태도와 심리의 변화만이 인류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다.”²⁾고 말한바 있다. 즉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개개인의 심리(영혼)이며 그 영혼을 동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술이다. 다시 말하자면 예술은 인간 개개인이 다음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게끔 도와주며 자신이 무엇을 이해하고 있고, 옳다고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준다.³⁾

프로이트(S. Freud, 1856-1939)와 융은 자신들의 심리학 이론과 정신분석학 이론을 기초로 20세기 초 예술적 표현과 정신세계의 관련성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켰다. 예술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접근은 정상적인 혹은 비정상적인 성격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정신분석이론을 예술의 현상에 적용하고 있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예술은 인간행동의 독특한 영역으로 간주되기보다는 무의식과정에 의하여 지배되는 많은 인간행동의 하나로 간주된다. 따라서 예술적 행위는 무의식적으로 억압된 욕구들을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예술가는 억압된 욕구에 의하여 발생하는 불유쾌한 내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승인된 방식으로 예술작품을 창조하

1) 융(Jung) - 1931년, 「정신치료의 실제」라는 논문에서 미술치료의 많은 준거를 제시, 치료로서의 미술(Art as therapy)을 개발시켰다.

2) C.G 융, 「C.G 융 무의식의 분석」 설영환역 (선영사, 1986) 머리말중

3) Arnheim, Rudolf,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역 (미진사 1995) p.446

게 된다. 이러한 예술의 창조는 불유쾌한 내적 긴장을 아무런 제약 없이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따라서 유쾌한 경험을 동반하게 된다.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감상자는 작품을 감상하면서 대리적으로 동일한 경험을 하고 이를 통하여 즐거운 느낌을 갖게 된다.⁴⁾

프로이드는 예술적 행위의 무의식적 비이성적 설명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예술작품의 이해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예술심리학에서의 연구가 보여주는 예술의 역할을 예술을 통한 외부 세계의 지배, 예술을 통한 내적 균형 유지, 예술을 통한 외부의 세계와 내부 세계의 부조화 타협, 삶에 의미를 주는 추진력의 기호로서 예술의 기능을 정리할 수 있고, 이는 예술의 정신적 영역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인간은 예술을 통해 외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선사시대의 미술, 원시미술이나 어린이의 그림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인간은 예술을 통해 세계를 소유하고 지배하고자 한다. 인간은 그가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 물질적인 것 뿐 만아니라, 그 자신이 발견한 기쁨, 환희와 같은 감정은 결국 그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하여 예술을 통해 인간은 드디어 그가 주위에서 본 것과 그것에서 체험한 것에 대한 일종의 승리자, 즉 보유하고 불변하게 하는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술은 세계에 직면해서 갖게 되는 인간의 힘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예술 작품을 예술가가 체험한 감성과 일치시키는 알파한 심리로서가 아니라, 예술은 삶에서 체험한 감정이 변모된, 극복된 형태로써 표현되고 수용된다는 것이다.

둘째, 예술은 내적 균형을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갖는다. 예술가 자신과 관객에게 예술은 극한 상태로 체험한 내적 갈등과 고통을 하나의 단순한 스펙타

4) Freud는 *Unehagen an der Kultur*에서 예술은 무의식적으로 억압된 욕구를 안전한 상상의 세계에서 충족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Freud는 이 저서에서 삶에서 나타나는 좌절과 실패를 참아내고 극복하도록 하는 세 가지 가능한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방식은 학문이다. 사람들은 학문적 활동을 통하여 불쾌감을 가져다주는 원인을 제거시킴으로써 문제에 대한 대처를 하게 된다. 둘째로는 종교를 들고 있다. 종교는 성적 에너지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전환시키고 동시에 현세의 삶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 예술을 들고 있다.

클로 변환시켜, 내적 안정감을 회복시켜주는 심리적 효과를 준다. 예술은 지적 작업이 요구하듯 해명되지 않으면서, 인간의 총체적인 감성을 자발적으로 밖으로 내놓게 한다.

셋째, 예술 작품은 위에서 거론한 사항보다 더 폭 넓고, 개개인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형이상학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해주는데, 이는 예술의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의 부조화를 타협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한 느끼고 존재하는 우리의 방식에 대해 알고 있다. 이는 의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의식은 우리가 우리에게 갖는 그리고 우리의 '나'를 구성하는 것이다. 예술의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의 통합은 인간의 정신적인 능력을 유지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예술 작품은 우리의 균형을 유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삶에 의미를 주는 충동, 추진력의 기호이다. 예술가는 예술 작품을 통해, 그리고 관객은 그 후속 단계에서 그가 보는 것을 변모시키고자 하며, 작품을 자연적인 기능에 분리시켜 '그 자신의 목적'을 주고자 한다. 즉, 예술이 취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든 간에 필요에 의해 진보를 의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5)

이렇게 예술가의 창조와 관객의 지각과 관련한 의식과 무의식의 현상에 대한 예술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예술이 인간의 정신적 영역에 기여하는 가치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 할 수 있도록 한다.

5) 이은적, 「이미지 문명 시대와 미술 이미지의 힘 (예술심리학적관점으로 본 미술교육)」 教育學研究, 2003, vol. 41 pp93~115참조

2. 예술의 정서순화 기능

정서는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이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감정을 가지게 되며 이에 따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연쇄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서는 단순히 ‘마음속의 느낌’이라고만 정의하기보다는 마음속에서 생각한 것이 밖으로 표출된다는 의미에서 인지적, 사회적, 행동적 측면이 함께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서는 유발된 정서를 느끼고 감지하는 경험 정서와, 경험 정서를 외부로 표출하는 표현 정서로 나눌 수 있다. 정서를 경험하는 시점과 그것이 표현되는 시점 간에는 시간차가 존재하는데, 시간차는 정서 경험과 표현 과정 사이에 여러 가지 요소들(동기, 성격, 사회적 규범 등)이 차별적으로 개입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즉, 정서를 외부로 표현하는 정도에 따라서 정서표현의 개인차가 나타나며, 이는 예술적 자기표현에서 나타난다.

칸딘스키(Kandinsky, 1866-1944)는 그의 저서에서 예술의 기능에 대하여 “예술은 무관하게 우연히 생겨난 현상도 아니며, 다른 모든 실체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창조하는 능동적인 힘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삶을 영위하고, 삶에 영향을 미치며, 인간의 정신적 분위기를 창조에 관여한다. 그러므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발전시키고 순화시키는 데에 기여해야 한다.”⁶⁾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에 덧붙여 “예술작품은 관조자에게서 유사한 감정을 환기시키는 능력을 가졌기에 이를 창조하는 예술가는 현존하는 세계의 내적인 것을 인식하고,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을 교화시키고 자신의 고유한 영혼을 가다듬고 배양해야 한다.”⁷⁾ 라고 기술하면서 작가가 작품에 임하기전의 작가 정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칸딘스키에 의하면 예술의 정서순화 기능이란 이

6) 칸딘스키,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권영필역 (열화당, 2000) p.128~128

7) Kandinsky, Wassily, 「점, 선, 면」 차봉희역 (열화당, 1963) p.179

시대의 표현이면서 동시대의 고양된 삶을 이끌어 주고, 인간의 정신과 감정을
여과시켜 주는 인간 정신의 상호 소통자인 것이다.

예술의 정서순화 기능을 포함하는 예술교육은 정서의 함양, 창의성의 개발,
미적 안목의 육성 등 지식적인 면보다 정신적인 측면을 보다 중요시 된다. 예
술교육에서 정서순화는 정서지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정서지능 역시 감
정에 관련된 정신적인 차원의 지능이라는 점에서 상호간에 깊은 연관성을 가
지고 있다. 예술교육과 정서와의 밀접한 관계를 알기위해 정서지능의 많은 요
소들 중 예술 활동을 통하여 정서순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섯 가지의 특징
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정서인식능력은 매 순간 느끼는 자신의 감정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
게 아는 것과 더불어 다양한 표현방식으로 나타나는 다른 사람의 정서를 정확
하게 해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다. 즉, 자기 자신과 타인의 감정 상태의 변화
를 인식하는 능력으로 이 능력은 인식 후에 오는 행동에 많은 영향을 준다.
자신과 상대방의 정서 인식에 기초하여 자신의 정서표현 행동을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결정하거나 감정이입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를 원만하게 만들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근
본적으로 정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정서 상태를 인식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타인의 내적 정서 상태에 대한 꾸준한 관찰이 있
어야 하고 탐구하는 자세가 동반되어야 한다. 자신의 정서와 다른 사람의 정
서를 인식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품 감상활동이나 다양한 이
야기 자료를 활용하는 감정이해활동을 할 수 있다.

둘째, 정서표현 능력은 정서 상태를 떠올리고 다양하게 표현하는 활동으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기분, 타인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으로 자신의
감정 상태를 행동이나 말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다. 자신의 정서를 표현한
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첫걸음으로 상대방과의 긍
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즉 상황에 적합한 정서를 표현하거

나 자신의 신체 정서를 정확하게 표현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표현능력은 단지 표현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를 주의 깊게 살피는 능력도 포함한다. 특히 학생들의 학교생활 중에 가장 많이 머무른 교실 내에서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친구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정서를 떠올리고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셋째, 감정이입 능력은 주변의 사물, 사람의 정서 상태에 공감하는 활동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공감할 줄 아는 능력으로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능력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정확하게 해석한 후 그 감정을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처럼 한 번 더 느껴봄으로써 감정을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처럼 한 번 더 느껴봄으로써 감정을 공감하는 것이다. 감정이입을 위한 선행 조건인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이해는 다른 사람의 행위 기준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여 봄으로써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타적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감정이입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상황에 따른 상대방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여 상대방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쉽게 느낄 수 있다. 이런 상대방의 다양한 정서와 욕구를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입 능력은 다양한 상황 속에 습득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한 연습이 있어야 향상이 가능하다.

넷째, 정서조절 능력은 자신과 상대방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으로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인 기분으로 유지하도록 조절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방의 정서 조절은 상대방의 정서를 좋게 바꿔 주려고 하거나 상대방에게 자신의 인상을 좋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대인관계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이다. 따라서 정서 조절은 자신의 기분을 향상시키고 자신이 목표한 것의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도 좋게 만들어 긍정적인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섯째, 정서활용 능력은 한 개인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 자신의 정서를 사용하여 생산적인 활동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능력으로 스스로 정서를 다스리고 이용하는 능력이다. 즉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하기위해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이용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융통성 있는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며 창조적인 사고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끝까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신을 동기화 시켜 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서를 조절해 문제에 대한 집중력도 높여 준다. 따라서 효과적인 정서 활용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극복할 수 있고 스스로 삶의 목표를 위해 정서를 다스리며 더 나아가 원활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Ⅲ. 정서순화로서의 미술활동

1. 미술활동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

흔히 미술활동은 감정의 배출구라고 한다.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고 표현된 정서를 정확히 이해하게 하는 자기표현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어떤 거창한 미학적 근거에 맞추어 인간의 미술이 시작 된 것은 아니다.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웃음으로 터뜨리거나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인간의 표현활동은 손가락으로 무엇을 주물럭거리며 만들거나 막대기로 땅이나 벽에 선 긋기를 하면서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고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서 시작한 것이다. 즉,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쌓인 감정을 배출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술은 자신과 타인에게 파괴적이며, 그밖에 일상생활에서 쌓인 감정과 긴장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1) 감성발현에 의한 정서순화

‘감성’이란 용어는 역사상 오랜 시간 동안에 수많은 기존의 심리학자와 교육학자, 철학자들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온 어휘다. 감성의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감각을 매개로 하여 받아들이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감성이라는 마음의 능력은 정의하면 ‘감정, 또는 느낌’, 즉 의식적으로 느껴진 경험의 성질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의 소산이라고 간주해야 한다. 이처럼 감성은 특정 느낌이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능력을 뜻한다. 그리고 정서는 어떤 대상에 의해 야기되거나 혹은 대상에 지향되어 일어나는 내적 감정이나 감각작용인 것이다.

옥스퍼드 사전에서 정서를 ‘마음과 감정, 그리고 걱정의 동요나 혼란, 즉 격렬하거나 흥분된 정신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니엘 골만(Daniel Goleman)⁸⁾은 정서를 ‘하나의 감정과 그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뚜렷한 사고 및 심리적, 생리적 상태와 일련의 행동 경향’이라고 말하고 있다. 인간이 대상을 볼 때 단순히 사실을 인지할 뿐 아니라 아름답다, 밋다, 기분 좋다 등의 가치를 매긴다. 이런 신체 내외의 자극을 일으키는 주관적 동요와 정신활동의 체험, 대상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감정이고 정서다. 정서는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감정과 행동이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인 것이다. 정서의 어원인 ‘밖으로 움직인다(emotion)’에서 알 수 있듯이 정서는 인간에게 발생한 어떤 사건의 직접적인 결과라기보다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각한 바가 밖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술활동은 미술경험 자체가 본질적으로 감성지능의 주요 능력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다양한 미술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감성지능의 능력들이 길러질 수 있다. 미술을 통해 감성지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현기능을 높이기 위해 기법 위주의 수업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하여 그런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격한 감정을 미술표현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또한 감상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을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표현하는 기회를 많이 부여해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재미있고 다양한 미술활동 속에서 정서를 함양하고, 정서를 순화하며, 감성지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2) 감성발현의 심리 치료적 영향

미술은 마음속에 담고 있는 감정을 해소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활동이다. 심

8) 다니엘 골만은 미국의 심리학자로 1995년 ‘Emotional Intelligence(감성적 지능)’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는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가 있다.

리학에서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감정이 정화, 순화된다는 의미로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사용한다. 심리치료에서는 고통을 덜기 위해 강렬한 감정을 방출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러 가지 형태의 미술활동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감정으로부터 안도감을 주는 정화작업이 가능하다. 이처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나 경험을 미술활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모든 과정이 감정의 정화라고 할 수 있다.

미술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은 기분을 환기시키고 이완시키는 생리학적인 반응을 일으켜 두려움이나 감정적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다. 은유적인 상징으로 충격적 장면을 표현하는 행위는 심리적 충격을 받은 사람들의 그림에 항상 나타내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 치료의 단서를 찾기도 한다. 사람들을 사로잡는 강력한 기억들은 그들의 사고뿐만 아니라 그들의 예술적 표현에도 깊이 침투해 있는 것이다. 또 그림을 그린다는 자체가 심리적 충격을 극복하는 과정의 첫걸음이며, 심리 요법으로서도 매우 효과가 있다. 9)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 자기의 내면세계를 발현한 후에 나타나는 특징은 첫째, 자극을 주는 사건들에 대해 전과는 달리 크게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편안하거나 둔감한 반응을 나타나게 된다. 둘째, 공개적인 반응을 통해 대인관계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이다.

9) 권준범, 「미술활동에 내재된 심리치료 요인에 대한 연구」, 사향미술교육논총 제 10집, 2003, pp29~33 참조

2. 미술활동의 치료적 적용

정서능력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미술치료는 여러 가지 미술매체를 통해 억압된 내면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을 돕고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희망, 느낌 등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미술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인간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려는 미술치료는 인간이 언어로 말하기보다 미술작품을 통하여 자기의 객관화, 자기 통합화, 동일시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근거해 유아를 위한 진단 및 치료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미술치료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미술교육에서의 치료적 의미와 효과성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미술치료의 이해

(1) 미술치료의 개념

미술치료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술과 치료의 관계와 미술치료의 정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술치료는 미술과 치료라는 두 영역의 만남으로 이루어진다. 미술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어, 인간의 문화적, 사회적, 인격적 발달과정을 증명하고 있는 예술로서,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치료(therapy)는 환자의 병을 치료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진단과 환자의 적응상태를 기초로 하여, 목표 지향적 임상작업의 관점에서 적용되고 있다. 10)

미술치료¹¹⁾는 “미술작업을 통하여 정서적 갈등과 심리적인 증상을 완화시키고 원만하고 창조적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심리치료법”이라고 요

10) 정여주, 「미술치료의 이해」, 학지사, 2003, pp13~14

11) 미술치료라는 용어는 1961년 「Bulletin of Art therapy」의 창간호에 실린 울만(Ulman)의 논문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약할 수 있다. 미술작업을 통한 심리치료가 가능한 것은, 미술을 통한 창작이 우리의 내면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세계를, 우리의 외면이라고 할 수 있는 현실 속에 작품이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게 한다는 특성 때문이라고 하겠다.

미술치료는 이러한 창작을 통한 내면세계의 외면화 과정 속에서, 개인의 갈등적인 심리상태나 정서 상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연루된 갈등관계에 있는 심리, 정서적인 요소를 조화롭게 해결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개인의 심리적인 갈등을 완화시키거나, 병리적인 정신구조를 재편성하게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미술창작은 치료이자 삶의 질 강화라는 의미를 내포한 창조적인 과정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미술치료는 궁극적으로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미술작품을 통하여 심리를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술치료(Art Therapy)의 뿌리를 찾아본다면 선사시대의 동굴벽화에 자신의 세계와 생각을 표현하였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러한 사고의 발달은 상징화(Symbolization)과정으로부터 출발하였고, 오늘날의 미술치료는 상징화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 프로이드와 융의 역할이 컸던 현대 정신의학과 함께 성장해 왔다. 프로이드는 특히 꿈속에서의 상징적 심상으로 생생하게 표현되는 무의식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2) 미술치료의 견해

대표적인 미술치료 이론가로는 나움버그(M. Naumburg,1890)¹²⁾와 크레이머(E. Kramer,1915)¹³⁾ 그리고 울만(Ulman)¹⁴⁾ 등이 있다. 여기서는 이들의

12) 나움버그는 정신분석학자로, 아이들의 자발적 미술표현에 크게 매료되었으며, 억압된 것을 이미지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이 침체된 의식을 재발견 할 수 있고, 동시에 의사소통의 효과가 있음을 알아내, 심리치료에 다양한 미술활동을 도입하였다.

13) 크레이머는 아동미술치료에 많은 연구를 했으며, 나움버그의 정신분석 지향적 미술치료 견해와는 다른 이론을 세움으로써 미술치료의 기반을 구축했다.

입장을 요약하여 미술치료의 개념과 견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격적으로 미술치료 분야를 개척한 선구적 인물은 나움버그이다. 그녀는 자신의 꿈이나 환상을 그림으로 그리는 작업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면서 무의식의 의식화와 더불어 창작을 통하여 상징을 발견하는 것이 치료적인 요소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치료자와 내담자의 관계 형성, 전이¹⁵⁾와 역전이¹⁶⁾의 해결, 자유연상¹⁷⁾, 자발적인 그림 표현과 해석, 그리고 그림의 상징성을 중시하는 그녀의 ‘미술’을 심리치료의 매개체로 인식한다.

이에 비해 크레이머는 그림의 치료적 속성이 내담자의 연상을 통해 자기표현과 승화작용을 함으로써 자아가 성숙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미술작업을 통해 내담자 자신의 파괴적, 반사회적 에너지를 분출, 감소 혹은 전환시키며 그 과정 중에서 자신의 원시적 충동이나 환상에 접근시킨다. 그리고 갈등을 다시 경험하고 자기 훈련과 인내를 배우는 과정 속에서 해결과 통합을 이룬다고 크레이머는 설명한다.

이 두 견해를 통합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울만이다. 그녀는 ‘미술’과 ‘치료’라는 두 영역의 결합인 미술치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치료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미술은 치료자와 환자 사이에서 전달된 상징적 대화이며, 정신분석적 정신치료법의 도입 수단이다.

둘째, 미술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서 예술을 창조하는 행위야말로 치료적인, 다시 말하면, 마음이 병든 사람을 재통합하는데 현실과 공상, 의식과 무의식을

14) 울만은 미술작가로서 활동했으며, 자신의 미술작가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미술치료를 하게 되었음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녀가 1950년대 초 정신병원에서 미술교사의 입장에서 일하면서 “결코 미술교사 혹은 미술치료사는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했다. 그 후 1961년 울만은 "미술심리치료"와 "치료로서의 미술"을 통합할 수 있는 정의를 내리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런 통합을 위해 울만은 임상가로서 나움버그와 크레이머의 견해를 적절히 절충함으로써 둘 간의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15) 전이(轉移): 내담자가 이전의 대인관계 중 중요했던 사람에게 가졌던 감정을 상담자에게 무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주로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를 재현하게 된다.

16) 역전이(逆轉移): 내담자의 태도 및 외형적 행동에 대한 상담자 개인의 정서적 반응

17) 자유연상(自由聯想): 정신분석적 치료에서 사용하는 기법으로서 내담자가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아무리 부적절하고 부끄러운 것이라도 모두 이야기하도록 한다.

융합하는 예술이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다. 18)

그녀는 나움버그와 크레이머의 이론 모두 적용 타당성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울만에게 있어 ‘미술심리치료’와 ‘치료로서의 미술’은 치료적인 측면과 창조적인 측면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3) 미술치료의 의의

미술치료가 갖는 의의에서는 미술치료가 미술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미술치료가 갖는 장점은 왜 미술치료가 필요하며 어떻게 제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점을 제공할 것이다.

첫째, 미술은 심상의 표현이다. 즉 전언어적 사고가 심상의 형태를 취하며 이는 성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술매체는 종종 심상의 표출을 자극하며 창조적 과정으로 나아가게 한다.

둘째, 미술은 비언어적 수단이므로 통제를 적게 받아 내담자의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다. 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방어이다. 우리는 어떤 다른 의사소통 양식보다 언어화시키는 작업에 숙달되어 있다. 미술은 비언어적 수단이므로 통제를 적게 받는다. 예상치 않았던 작품이 그림이나 조소에서 제작될 수 있는데 가끔 창작자의 의도와는 완전히 반대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것은 미술치료의 가장 흥미 있는 잠재성 중의 하나이다.

셋째, 미술활동은 즉시에 유형의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점으로 자기 자신과의 가치에 저항이 있는 대상에게는 미술표현이 그의 사고 및 감정을 객관화하는 다리 역할을 해준다. 즉,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져 볼 수 있는 자료가 내담자로부터 생산되는 것이다.

넷째, 미술은 자료의 영속성이 있어 회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내담자 자신도 작품을 통해 기억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 미술 작품은 보관이 가능하

18) 한국미술치료학회,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동아문화사, 1994, pp33~38

기 때문에 내담자가 만든 작품을 필요한 시기에 재검토하여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다섯째, 공간성을 지니고 있는 점으로 미술의 공간 속에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관성들이 발생하게 되어 개인과 집단의 성격을 이해하기 쉽다. 언어는 일차원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대체로 한 가지씩 순서대로 나간다. 하지만 미술 표현은 언어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는 본질적이며 공간적인 것이다.

여섯째, 미술활동이라는 육체적 운동을 통해 신체 에너지를 유발하고 나아가 창조적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술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개인의 신체적 에너지는 다소 떨어져 있지만, 미술 작업을 진행하고, 토론하며, 감상하고, 정리하는 시간에는 대체로 활기찬 모습을 띤다.¹⁹⁾

이러한 미술치료의 장점들은 미술활동을 통한 교육적인 효과에도 활용 범위가 다양할 수 있으며, 획일화된 미술활동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미술교육에서 치료적 의미

미술교육에서는 미술치료처럼 문제 행동 및 부적응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하여 미술교육의 바탕 위에 치료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미술치료 영역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미술치료는 교육적 관점을 도외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아동 및 청소년 미술치료는 교육자, 특히 미술교사 및 상담교사들에게 큰 관심을 일으킨다.

위와 같은 내용은 미술교육과 미술치료가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여러 이론가들의 주장들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미술치료가 미술교육의 교수법적 관점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접목시켜 발전하게 되는 배경

19) 한국미술치료학회, 전게서, pp40~42

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9세기에는 미술교육과 미술교수법이 자연묘사력, 외적인 아름다움과 균형을 중시한 반면, 20세기 초부터 미술교육자들은 그 시대의 미술조류가 된 표현주의화풍과 프로이트의 심층심리학에 영향을 받아 미술교육에 그러한 관점들을 실제에 적용하였다.

20세기 초에는 아동이 어린이다운 감정을 미술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는 관점을 받아들이고, 전시대의 미술교수법에 대한 비판하면서 새로운 개혁을 시도하였다. 그 개혁적인 관점의 대표적인 미술교육자로는 오스트리아의 치첵(Franz Cizek 1865-1946)²⁰⁾을 들 수 있다. 그는 아동그림의 형식과 기법은 무엇보다 아동들이 외적인 영향에 방해를 받지 않고 자신들의 욕구에 따라 내면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바우하우스²¹⁾의 교수였던 칸딘스키(Kandinsky, 1866-1944)도 1912년의 그의 저서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Über das Geistige in der Kunst)에서 관찰과 감정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그는 색채와 형태는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합리적이고도 분석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관찰과 직접적인 경험에 따른 미술적 표현의 강조는 미술교육과 교수법에 영향을 끼쳤으며, 이러한 방법을 미술치료에도 적용하여 개발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미술교육은 조형 활동을 통한 심리적, 치료적 방향의 모색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이때부터 미술활동이 미술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심리학자와 의사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²²⁾

역사적으로 미술교육과 미술치료의 결합은 이분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 미술교육은 문제해결 활동을 통해 능력향상을 목표로 한 인지적 훈련을 하는

20) 치첵은 미술교육자로 20세기 초기에 창조교육론이 대두되는 결정적인 역할하였다.

21) 바우하우스(bauhaus)는 건축가 그로피우스(Wlter Gropius)가 바이마르에 1919년에 설립한 공예, 건축, 디자인 등의 종합예술학교.

22) 정여주, 전개서, pp23~29

기술적 접근을 유지해왔으며, 반대로 미술치료의 즉흥적 자아표현은 기술적 숙련보다는 직관적, 감정적 문제 해결을 이끌기 위한 자유 연상적 표현을 이끈다고 생각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케인(Cane)과 로웬펠드(Lowenfeld 1903-1960)같은 미술교육가들은 미술교육과 미술치료의 방법을 접목시키려고 했다. 이 두 선구자들은 치료적 미술교육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치료적 미술교육(therapeutic art education)”이란 단어는 로웬펠드에 의해 새로 만들어진 표현 “art education therapy”에서 유래되었다. 로웬펠드가 지적했듯이, 미술의 생명력과 그들의 동일성 감각사이의 상호의존성은 중요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감각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의 미술은 크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케인도 미술에서 상동적인 표현을 지양하고, 그림을 그리는 행위, 이미지의 투영, 기억과 내적 체험을 통한 표현 등을 중요시하며 아동 미술을 지도하였다. 특히, 미술표현의 주제로서 감정, 환상 등을 강조하고 인지적인 대상을 가급적 그리지 않는 표현법을 고안해내었다. 아울러 격렬한 갈등과 강박감 속에 파묻혀서 외계의 자극이나 인상을 수용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이 방법이 유효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헨리(Henley,1992)²³⁾는 치료적 미술교육자에 대한 논의에서 이런 개념을 이야기했다. 치료적 미술교육은 미술 제작과정의 치료적 장점을 인식하여 사용하는 미술교육을 의미한다. 이는 분석, 심리치료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 같은 분석적 지지를 대신하기 위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접근은 아동을 한사람의 인격체로 보고, 지지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으로 응답하며 진지하게 그들의 문제를 받아들이도록 한다.²⁴⁾

미술제작과정은 다양한 아동들의 관심사를 표현하기 위한 이상적인 매체이며

23) 롱아일랜드 대학에서 예술 치료 프로그램 담당자이자 과잉 행동 장애(ADHD)와 관련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담당하는 한 정신 의학 단체의 임상 감독. 미술 치료사와 교육자로 활동하면서, 예술 치료의 많은 측면들에 대해 폭넓게 강의하고 가르치고 글을 쓰고 있다.

24) 최재영, 「부적응 아동을 대상으로 한 치료적 미술교육 접근에 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2002, pp174~175

심리학적, 사회적, 미학적, 지적인 성장을 촉진시키므로 치료적 미술교육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적, 발달적 관점에서 아동과 아동기 행동, 교육, 미술에 대해 이해해야하며 미술교육과 미술치료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미술교육에서 치료적 효과성

미술활동은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으로 구성하고, 배열하고, 붙이고, 색칠하고, 형태를 완성하는 유형의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 미술활동과 관련한 개인적인 경험은 미술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느낌, 생각, 사고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페라스케바스(Paraskevas)는 미술교육에서 이차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자아실현과 자기만족이 미술치료과정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녀는 미술교육이 미술치료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단계적 수준을 밟는 미술교육과는 달리 미술치료의 구조는 상대적으로 유동적이며 단계도 기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고려하여 치료세션 내에서 변동 가능하다. 더불어 미술치료에서 작품은 미적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작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쟁적 요소는 없다. 미술치료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기발전이며 이외에 삶의 경험과 관련 미술작품에 대한 반응과 감정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²⁵⁾

미술교육에서 치료적 효과성을 알기 위해서는 미술치료의 개념과 미술교육의 비교가 필요하다고 보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교육이 미적 요소와 기술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둔다면, 미술치료는 미적 요소나 기술의 습득은 치료목적에 종속적인 것이고 미술작업 ‘과정’ 자체

25) 최재영 외, 「유아미술치료」, 수원여자대학, 2002, pp59~60

에 좀 더 비중을 둔다.

둘째, 미술치료는 치료라는 의학적인 입장을 미술교육은 교육이라는 입장을 취하므로 서로 차이를 갖지만 미술교육과 미술치료는 미술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품보다는 과정상의 변화를 중시하고 그 과정상에는 창의성, 사고력 증진이나 안정감, 만족감 등의 감정적 목표가 중점으로 차지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따라서 미술의 두 개의 줄기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술교육은 전반적인 발달을 목적으로 대다수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미술치료는 개선의 목적으로 개개의 아동과 청소년의 상황이나 상태에 맞추어서 방법이나 접근이 달라진다. 즉 미술치료는 획일적인 계획이 가능하지 않다. 물론 요즈음의 미술교육의 입장도 이러한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교육적인 발전이 아닌 치료적인 개선이라는 점이 다르다.²⁶⁾

그러나 크레이머는 미술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치료적인 방향으로의 미술을 발전 시켰다. 이것은 미술이 얼마나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그러한 매체에 대한 활용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미술을 통해 학생과의 의사소통으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더 많이 이해하여 바람직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미술활동이 치료적 도움을 주고 미술치료에서 미술교육자의 이론과 연구를 도입하는 등 미술교육이 미술치료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 개발된 미술교육 방법은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고 있다.

26) 조윤희, 「미술치료에 대한 인지도조사를 통한 미술치료 활용 프로그램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pp23~24

IV. 정서순화를 위한 치료적 미술교육

1. 미술영역별 미술치료 프로그램

그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잠재의식의 표출이다. 수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내면적 세계를 자신의 작품으로 표출하려 노력하듯이 청소년들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그림이라는 매체를 통해 표현한다. 그림은 심리 진단의 한 방법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림에는 무의식성과 의식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징의 의미이다. 그림 안에 상징은 인간의 깊은 곳에 숨겨진 사실을 들춰낸다는 것이다. 프로이드는 무의식의 연구로 ‘꿈’의 상징성을 강조하였다. 무의식의 상징은 과거의 억제된 경험과 잠재된 욕구를 조형 활동을 통하여 표출한다. 인간의 심리상태를 진단하려는 노력 이른바 투사법이라는 이름 아래서 인물화에 의한 지능검사나 성격검사, 집, 나무, 사람검사(House, Tree, Person), 나무 그림검사, 가족화에 의한 성격진단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왔다.

미술작업을 통해서 심리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하는 것을 미술 치료적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대상에 따라서 다양한 기법이 될 수 있다. 여기서는 미술 치료에 활용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1) 치료 도구로서의 미술기법

① 진단적 도구로서의 미술기법

<자유화>

아동 스스로가 결정하여 그리게 하고, 색채사용, 선과 공간이용과 공간적 형

태, 내용(부모, 형제, 자신, 산, 태양 등)등을 분석한다. 이와 같은 분석방법은 아직 신뢰도나 타당도에서 동의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제한성에 유의해야 한다.

<과제화법>

인물, 가족, 친구, 집, 산, 나무, 동물, 길 등의 과제를 미리주고 아동에게 상상화를 그리게 한다. 이상행동에 대한 내면적인 욕구와 그 욕구를 저지하는 압력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인물화, 묘화 완성법, 나무그림, 집 그림검사, 산과 해의 묘화법, 풍경 구성법, 등이 여기에 속하며 산, 길, 집 같은 특정의 과제를 부여할 수도 있다.

<상상화 그리기>

한 장의 종이에 전혀 주제를 주지 않고 자유주제로 상상화를 그리게 하고, 다른 또 한 장에는 사람, 태양, 집 등 세 가지의 내용이 있는 상상화를 그리게 한다. 즉, 후자는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형태, 색채, 구도, 동적 요소, 내용들이 분석기준이 된다.

<나무 그리기법>

인간의 발달을 묘사하기 위해 가장 흔히 사용하는 보편적인 상징인 나무 그림은 진단에 많이 사용되며, 나무를 한 그루 그리도록 지시하여 아동의 질병상태를 잘 발견할 수 있다. 한국판 검사도구가 개발되어 있으며 나무 그림을 그리게 하여 진단할 때에는 나무그림 검사기준을 참고한다.

<집, 나무, 사람 검사(HTP)>

많은 임상가들이 사용해 온 것으로, 진단도구로 많이 사용되며 사전, 사후검사에도 유용하다. 4장의 종이를 차례로 제시하고 각각에 집(House), 나무

(Tree), 사람(Person)을 그리게 하는데, 어떤 연령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떠한 주제보다 친밀감 있고 주제에 대해 솔직하고 자유로운 언어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HTP를 한 장에 다 그리는 통합법도 사용되며, 운동성을 가미한 동적HTP(K-HTP)도 개발되었다.

<인물화>

인물화를 그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그린다고 볼 수 있다. 자유화에 비해서 저항이 적어 심리검사로 애용되고 있다. 한국판 표준검사는 없으나 미국이나 일본의 기준에 준하여 분석하며 소요시간을 체크하며 진행된다. 보관이 용이한 A4용지와 연필을 제공해주고 두 장의 종이에 각각 남자상과 여자상을 그리게 한다. 이때 전신의 신체를 그리도록 유도한다.

<가족화와 동적가족화>

비언어적인 검사로써 지시를 이해하거나 글을 읽을 정도의 언어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고 언어능력이 낮은 아동, 정서 장애아에게 적합하다. 동적가족화는 단일의 인물 대신에 <가족>을 그리게 함으로써 부모나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임상에서 많이 이용 된다. 가족화(DAF)와 가족들의 행동을 수반하여 그리게 하는 동적 가족화(KFD)는 가정적 문제를 파악할 수 있어서 효과적이다.

<가족체계 진단법>

가족 전체나 부부, 부모나 자녀들이 협동하여 그리게 함으로써 그들의 가족 관계를 파악한다. 최근에는 동그라미 중심 가족화(FCCD, PSCD)를 통하여 부모나 자기의 관계를 진단한다.

<학교생활화>

학교의 친구와 선생님을 포함하여 그림을 그리게 하여 내담자의 학교생활을 분석한다. 친구와는 학급 진단 내의 사회적 위치나 역할, 적응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6~10세 아동의 경우에는 놀고 싶은 친구, 하고 싶은 것 등을 그리게 한다. 직장, 정치생활 등에도 사용한다.

<풍경구성법>

도화지에 산, 강, 밭, 길, 집, 나무, 꽃, 동물, 돌 등을 그리게 지시하고 만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차례로 그려 넣게 하여 하나의 풍경이 되도록 채색하도록 한 다음 그것에 대해서 계절, 시각, 기후, 시내의 흐르는 방향, 사람과 집, 밭 등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협동화법>

가족이나 내담자들이 소집단을 이루어 한 장의 종이에 협동해서 그림을 그리게 하는 방법이다. 집단치료에 유용하며 자발성의 정도, 경험의 표출, 협동성, 그리는 위치, 내용, 그림순서, 주의력 등을 관찰하여 분석한다. 정해진 재를 주는 경우와 주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난화 게임법>

유아들의 심리평가에 사용하고 있으나 심리치료나 언어치료에 응용되고 있다. 자유롭게 난화를 제시하고 난화가 완성되면, 다 그리고 난 후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해 나가게 한다.

② 치료 도구로서의 미술기법

<테두리법>

테두리법은 내담자에게 치료자가 도화지를 제시하면서 용지에 테두리를 그려서 건네주는 방법이다. 묘화를 자극하고, 공포를 줄일 수 있어 자아가 허약한 내담자들에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 테두리를 그릴 때에는 부드러운 선을 사용하여 그려준다. 또 도화지에 원을 그려주고 원안에 그림을 그리거나 채색을 하여 과잉행동, 주의 산만 등을 통제할 수 있다.

<Starter Sheet> 27)

그림을 그리는데 저항이 있거나 공포, 수줍음 등을 줄여서 그림 그리기를 자극하고, 촉진하는데 사용한다. 장애아동이나 내담자에게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종이에 치료사가 직접 잡지에서 얼굴사진을 오려붙여 주거나, 눈을 오려붙여 주는 것이 좋다.

<난화상호 이야기 만들기법>

난화법과 이야기법을 종합하여 응용한 것이다. 난화에서 이끌어 낸 심상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치료사와 내담자가 새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게 한다. 최근에는 표현이 부족한 환자들에게 난화와 콜라주를 합친 기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기법은 중증장애보다 경증장애를 가진 환자에게 더 유용한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콜라주 기법>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미술치료의 기법이다. 거부의 감소, 분노의

27) starter sheet - 내담자가 미술활동 시작의 어려움이 있어 주춤거리고 있을 때, 시작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주는 것으로써 시작 선을 그려주거나 이야기의 시작을 제시하여 줄 수 있다.

노출, 희망에 대한 상징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표현이 쉽고 그리는 것보다 감정전달이 우수하나 선택할 수 있는 사진매체가 많아야 한다. 자기감정으로 나타내기.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하고 싶은 것, 선물을 받고 싶은 것, 타인에 대한 느낌, 문제의 예방 및 대처 방법 등을 쉽게 표현할 수 있다.

<역할교환법>

채색이나 콜라주, 난화, 그림 그리기 등에서 내담자와 치료사가 서로 번갈아가며 작품을 제작한다. 화면 분할법(한 장의 종이에 적당한 선을 그어 나눔)과 같이 사용하기도 한다.

<갈겨 그리기법>

사인펜을 주어 손으로 직접 그려서 선을 따라 가게 한 후 “어떻게 보이는가?”, “어디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한 후 채색하도록 한다. 환자와 치료자가 갈겨 그리기를 하면 환자 관계의 동력을 더욱 강하게 한다.

<집단 만다라 벽화 그리기 기법>

집단 속의 자기이해, 집단이해, 협동심 등을 기른다. 특히 공동화(협동화)를 벽화로 제작할 때 책상 위에 그리는 것보다 거부감이 적고, 편안하며, 역동성을 더 잘 나타내어 준다.

<핑거페인팅>

그림치료 초기나 말기에 사용한다. 정서의 안정과 거부, 저항의 감소, 이완 등의 효과를 가진다. 또한 작업의 촉진,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것은 나중에 작품으로 제시해도 좋고, 크리스마스 카드로 제작해서 사용할 수 있다.

<조소활동법>

점토로 인물상을 만들거나 자기 느낌을 표현하게 하여 해석하게 한다. 붉은 점토는 수채물감과 같이 액체도구로서 언어화가 결핍된 내담자에게 유용하여 과도한 언어화를 나타내는 사람들에게는 감각적 요소를 강조할 때 사용한다. 특히, 대상관계가 부족한 내담자의 치료에 유용하다.²⁸⁾

이외에도 구체적인 치료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매우 많다. 동물 가족화, 또는 동물자화상 그리기, 난화와 콜라주를 합쳐서 표현하기, 누구에게 주고 싶거나 받고 싶은 선물 표현하기, 상동적 행동을 수정하기 위하여 또는 표현을 자극하기 위하여 무용이나 노래를 도입하는 법, 색채치료법, 만화 그림 방식으로 대화하기 등 다양한 미술기법을 치료에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종류

미술치료에서의 치료계획은 대상의 이슈와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결정되어진다. 그 목적이 결정되면 대상이 만족할 수 있는 매체와 자료를 결정하여 치료적 기법을 그 활동에 적합하도록 세부적인 준비물과 계획안을 작성하여 실행하게 된다. 대상에 따라 필요한 목적별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진다.

미술치료에서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자아개념을 위한 프로그램, 가족관계를 위한 프로그램, 무의식을 드러내기 위한 프로그램, 집단작업을 위한 프로그램, 감정표현을 위한 프로그램, 신체와 관련한 표현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본 연구자는 이 중에서 청소년의 정서 순화를 위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아개념을 위한 프로그램, 무의식을 드러내기 위한 프로그램, 감정표현을 위한 프로그램

28) 한국미술치료학회, 전게서, pp446~469

을 선택하였다. 이 세 개의 프로그램의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학습지도안에 활용하겠다.

우선 한국미술치료학회의 이론들에 근거하여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미술영역별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표>-1에 제시된 주제는 현재 치료활동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들이다.

<표>-1 미술영역별 미술치료 프로그램

영역	미술치료 프로그램 주제
그리기	이름 그리기, 첫인상 그리기, 왼손 그리기, 감정 그리기, 둘이서 그리기, 가장 중요한 존재, 나의 어린 시절, 자화상, 초상화, 동굴화, 대화하는 그림, 삶의 파노라마, 가족의 소원, 가족의 기억, 나의 그림자. 장점과 단점, 도망가고 싶은 곳, 선을 따라서, 색과 대화, 낙서하기, 나의 심장, 등대, 보고 싶은 광경, 동화 그리기, 나의 인생, 나의 나무 그리기, 내 안의 빛, 나의 씨앗, 흔적 남기기, 먹물그림
만들기	가면 만들기, 인형 만들기, 내가 되고 싶은 얼굴, 내가 버리고 싶은 얼굴, 백색도시 만들기, 공 모빌 만들기, 나만의 달력 만들기, 나만의 비밀상자
조소	사과 만들기, 자소상 만들기, 석고반죽하기, 나의 집 꾸미기, 내마음의 뜰
콜라주	나를 광고하기, 동굴 가족화, 여백 없는 콜라주

① 자아개념을 위한 프로그램

자아개념이란 자기가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하는가 하는 개인의 개념을 뜻한다. 자아개념을 위한 미술치료는 작품의 미적 가치에 대한 평가보다 개인의 상상력과 독특한 개성을 중요하게 평가함으로써 긍정적 자아상의 형성에 도움을 주고, 특히 미술활동의 주제가 자아개념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좀더 깊이 있는 자기통찰의 기회를 줄 수 있다.²⁹⁾

<표>-2 자아개념 프로그램의 예

프로그램	내용	기대효과
자화상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릴 수도 있고, 2분 동안 자신의 특징적 모습을 중심으로 재빨리 그린다.	자기정서의 이해, 자기 동기화
자소상	눈을 감고 한 손으로 얼굴을 더듬고 다른 손으로 찰흙을 빚어 자소상을 만든다.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인식 확대
이름 꾸미기	자신의 이름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상징적으로 묘사하기	자기 동기화 및 표현력 강화, 감정의 이완
광고지 만들기	잡지나 사진을 이용하여 자신을 광고하는 광고지를 만든다.	자기 자신의 이해, 자기표현의 성취감
가면 만들기	도화지에 자유로운 형태로 자신이 갖고 싶은 얼굴의 가면을 만든다.	자기 자신의 이해, 자기표현의 성취감
내 마음의 동그라미	동그라미 속에 자기의 생각을 표현한다.	분열된 자아의 통합, 삶의 본질파악, 자기이해
인생 콜라주	다양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사진을 오려 붙이고 인물이 하는 말을 상상하여 써본다.	관심분야의 파악, 긍정적 미래관에 대한 비전 제시
나의 안과 밖	빈 상자를 이용하여 밖은 다른 사람이 보는 '나'를, 안은 내가보는 '나'를 표현한다.	자기 자신을 새롭게 지각하고 정립

29) 한국미술치료학회, 전게서, pp119~124

② 무의식을 드러내기 위한 프로그램

무의식적인 그림은 어떤 특별한 주제나 방향이 주어지지 않음을 뜻한다. 무의식적인 미술은 어떠한 것을 그리겠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지 않고 제작한 드로잉, 회화 혹은 그 밖의 모든 미술 형태를 의미한다. 자유연상과 적극적 상상의 결과로 무의식적인 미술활동은 미술치료의 과정에 주요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의식의 검열을 받지 않는 상징적 의사소통과 진실한 표현을 모두 촉진시키기 때문이다.³⁰⁾

<표>-3 무의식적인 표현 프로그램의 예

프로그램	내용	기대효과
눈감고 난화 그리기	흰 도화지를 난화를 그리는 동안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한 가지색을 선택하여 눈을 감고 30초 동안 선을 긋는다.	안정감
자주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그리기	보편적으로 글을 쓸 때 사용하지 않던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검열되지 않은 무의식의 표현
잉크와 끈으로 난화그리기	종이 위에 잉크나 검정 템페라에 끈을 적셔서 선과 형태 만들기를 하고 끌어당긴다.	감정의 분출, 무의식적 이미지 강조
물감 얼룩 만들기	종이 위에 크레용이나 파스텔을 이용하여 그린 후 물감을 사용해서 자신만의 얼룩을 만든다.	창의적이고 이완된 감정의 해방감
만다라 그리기	흰 종이에 컴퍼스나 접시를 대고 연필로 원을 그린다. 원한다면, 직접 원을 그릴 수도 있다. 선택한 재료를 가지고 선이나 색, 형태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원 안을 메운다.	자기이해, 타인의 이해, 감정의 이완

30) 말키오디, 「미술치료」, 최재영, 김진영(역), 조형교육, 2001, pp127~129

③ 감정표현을 위한 프로그램

외상이나 위기, 상실로 인한 감정은 논리적으로 표현하기 어렵고, 언어로 그러한 의미를 완벽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감정은 단어와 연관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마음속에 숨겨두어 우울함이나 혼란, 불안, 절망, 좌절 등을 초래한다. 제작과정은 사람들이 감정에 맞서고, 우울증을 극복하며, 외상의 경험을 통합하고, 슬픔과 상실을 경감시키고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³¹⁾

<표>-4 감정을 표현하는 프로그램의 예

프로그램	내 용	기대효과
감정저널 그리기	사용하고 싶은 드로잉 재료와 스케치북을 선택하여 ‘나는 오늘 어떻게 느끼지?’ 하고 자신에게 물어본다. 단지 지금 어떻게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단순한 형태와 색깔을 그려본다.	감정탐색, 자신과 타인의 이해, 공격성 감소, 자기 존중감 향상
안정감을 주는 이미 책 만들기	소리나 음악, 맛 또는 향기, 촉각적 느낌이나 질감, 나를 평화롭게 하고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한 특정한 경험이나 사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한다. 그 목록으로 잡지나 콜라주 재료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표현하고 걸표지를 달아서 책으로 만든다.	자신의 위로, 긍정적인 느낌의 창조, 상실 및 외상의 표현
안전한 장소 만들기	현실이건 상상이건, 일생 동안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꼈던 장소들을 모두 생각해본다. 안전한 장소의 특징에 대한 목록을 만든다. 미술재료를 사용하여 안전한 장소를 그린다.	긴장완화, 안전한 정신적 이미지 발견
감정지도 그리기	분노, 기쁨, 슬픔, 공포, 타인의 사랑, 자기애 등 각각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한 다른 색을 사용하여 그린다.	감정 탐색, 감정 전달

31) 말키오디, 전계서, p159

2. 정서순화를 위한 치료적 미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본장에서는 앞서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현대사회 학생들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순화시켜주고 창의적 활동에 도움을 주는 미술심리치료 요인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해 보고자 한다.

1) 치료적 미술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지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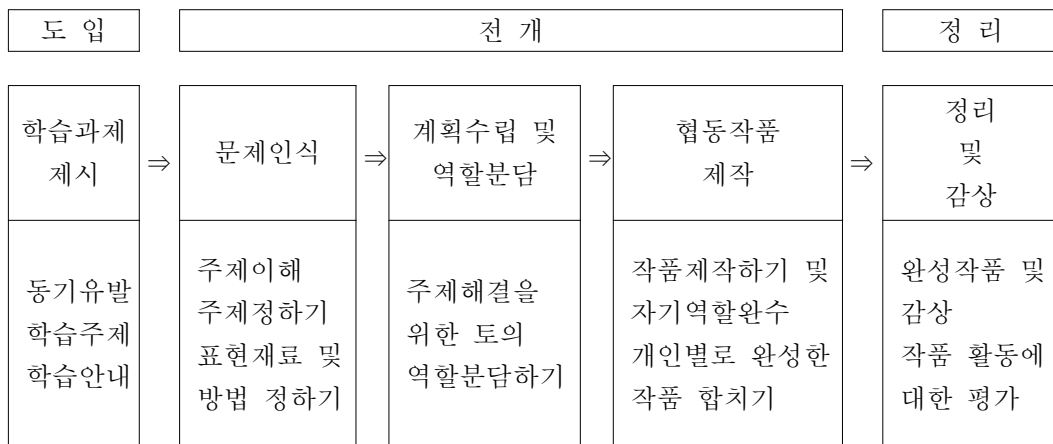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II장을 통해 정의한 예술교육에서 정서순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섯 가지의 정서지능 요소인 정서인식능력, 정서표현능력, 감정이입능력, 정서조절능력, 정서활용능력을 신장시키는데 목적을 두었다. 탐색, 발견, 이해, 적용의 단계로 프로그램의 기본 내용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5 프로그램의 기본 내용체계

단계	지도요소	내용
탐색	정서인식	정서와 표정 사이의 관계를 자유 탐색하는 활동 -감상활동, 감정이해활동
발견	정서표현	정서상태를 떠올리고 다양하게 표현하는 활동 -감정 표현활동, 느낌 표현활동, 경험 표현활동
	감정이입	주변의 사물, 사람의 정서상태에 공감하는 활동 -사물에 감정이입, 감각 지각 활동
이해	정서조절	긍정적 정서 상태를 유지하는 활동 -감정인지 및 대처활동, 문제해결방법 탐색활동
적용	정서활용	정서를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활동 -협동제작활동, 환경개선활동

또한 미술치료를 활용한 프로그램이나 학교 현장에서 사용 될 수 있도록 Johnson & Johnson (1987)이 제시한 일반적인 LT(Learning Together)³²⁾ 모형절차를 참고로 하여 미술과의 특성에 맞게 <표>의 프로그램의 구성순서로 적용하였다.

<표>-6 미술과의 LT 모형의 프로그램 순서도



(1) 치료적 미술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① 단원명

- 대단원-표현
- 주제

-먹물그림으로 이야기책 만들기 (난화법)

연상을 통한 난화적 표현으로 학생들간의 각기 다른 의식의 차이를 경험하게 하고 개인마다의 독특성을 받아들이는 기회를 준다. 제작과정에서 서로 협

32) LT모형 - 포괄적이고 융통성이 매우 높은 모형으로 구성원간의 상호 의존성이 높고 개인의 책임이 강조된다. 미술과에서 활용이 유용하며 특히, 표현활동에서 집단구성원의 모든 참여를 유도하여 작품을 제작할 때 적합하다.

력하여 융화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제목을 정하고 작업하는 가운데 자신의 정서와 타인의 정서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며, 상호 협력과 지지가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다. 교사는 결과물을 통해서 학생들이 지금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친구와 여행 (콜라주)

여행은 자아정체감을 찾고 싶을 때 떠나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친구와 같이 간다면 더 자신을 되돌아보고 친구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잡지를 찢으면서 스트레스를 발산시킬 수 있으며 테페이즈망기법을 통해 창의성을 자극할 수 있다. 여백 없이 콜라주를 하는 것은 인내력과 집중력을 기르고 주제와 배경과의 관계도 생각하여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활동은 집단응집력을 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집단원은 연대의식으로 자신감을 얻게 되며, 제작 과정에서의 토론을 통해서 타인의 의견을 조절하여 수용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우리 마을 (입체표현)

자신의 사회적 환경을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나와 가정에서 우리 마을 주변으로 시야를 넓혀 나의 위치를 생각하게 한다. 우리의 마을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으며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독창적인 이야기를 통해 상상을 자극한다. 안전한 장소를 의미하는 자기의 집을 꾸미는 동안 재료를 입체적으로 다루고 마을로 수성하는 과정에서는 서로의 공통된 공간과 개인적인 공간을 정리해 가면서 구성원들과의 조화와 타협을 배울 수 있다.

② 학습목표

- 심상의 표출을 자극하여 창의적 과정으로 표현할 수 있다.
- 협동학습을 함으로써 서로 다른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서로에게 피드백을

주고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공동의 작업은 상대방의 작품을 보완해 주면서 관계 경험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서로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인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

③ 학습 계획

차시	학습 주제	활동 내용	시간
1/3	떡물그림으로 이야기책 만들기	떡물을 이용하여 난화를 그리고 이야기책 만들기	45분
2/3	친구와 여행	콜라주를 이용하여 재미있는 상황 표현하기	45분
3/3	입체표현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집을 꾸미고 서로의 집을 모아서 우리마을 만들기	45분

④ 평가 관점

-수업에서 학생간의 상호활동과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독단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서로 화합하며 표현하고 있는가?

-주제에 따른 재료와 용구의 선택이 적절하며, 특징을 살려 효과적으로 표현하려 애쓰고 있는가?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창의적인 표현이 이루어졌는가?

-협동심을 발휘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협동작업 하려는 태도를 보였는가?

-결과물에 대한 발표를 할 때 다른 사람의 발표를 잘 감상하고 있는가?

⑤ 지도상의 유의점

-수업을 시작하면서 긴장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도록 한다.

-동기유발에서 학생의 흥미와 관심이 가는 이야기로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

- 재료의 사용이나 진행 방법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도록 한다.
- 조언자적인 입장에서 지도한다.
- 작품의 내용과 느낌을 그로 적게 하고 자신의 감정을 한 번 더 생각하여 정리할 기회를 제공한다.

(2) 교수-학습 활동 지도안

다음의 교수-학습 활동 지도안은 중학교 수업(45분)을 기준으로 하여 표현 주제별로 사용하는 재료와 기법에 따라 <표>-7~<표>-9와 같이 지도안을 작성하였다.

<표>-7 난화를 이용한 프로그램

단원	표현		차시	1/3
주제	먹물그림으로 이야기책 만들기			
학습목표	-연상을 통한 창의적인 자기표현을 할 수 있다. -협동 작업을 통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준비물	먹물, 붓, 1회용 접시, 4절지, A4용지, 칼라링 재료(색연필, 사인펜, 파스텔, 크레파스), 색종이, 가위, 풀			
단계	절차	교수-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학습 과제 제시	-동기유발 어린 동생이 그린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학습목표제시 -학습활동 안내 개별 학습→집단별 토론하기 →협동작품제작→발표→감상	-알아볼 수 없이 그린 낙서 같은 그림들을 생각한다. -학습목표 인지	
전개	개별 학습	-주제과악 먹물그림을 그린 후 그림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로 구성하여 책을 만든다. -표현하기 ①먹물그림 그리기	-오른손, 왼손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표현한다. -선생님의 진행에 따라 여러 가지 선을 그린다.	-사용하기 편하게 먹물을 일회용 접시에 조금만 담아 사용

	<p>-재료를 준비하여 놀이하듯이 오른손, 왼손으로 선 그리기(2장씩)</p> <p>-남성다운 선, 여성다운 선 그리기(각 1장씩)</p> <p>-슬픔을 표현하는 선, 즐거움을 표현하는 선 그리기(각1장씩)</p> <p>-폭발하는 느낌을 선, 무대에서 자기 자신이 춤을 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선 그리기(각1장씩)</p> <p>②이 중에서 먹물그림 2장을 선택하여 다양한 재료로 칼라링</p>	<p>-그림이 겹치지 않도록 펼쳐 놓는다.</p> <p>-먹물 그림 중에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그림을 선택하여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칼라링한다.</p>	<p>한다.</p> <p>- 먹 물 의 농도를 조절하여 그리도록 한다.</p>
<p>행동 학습</p>	<p>-집단별 토론하기(8명씩)</p> <p>칼라링 한 그림에 대해서 자신의 느낌과 상대방 그림의 느낌에 대해서 토론 하고, 그림을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한다.</p> <p>-협동작품 제작</p> <p>완성된 이야기로 그림에 내용을 적절한 위치에 쓴다.</p> <p>겉 표지(책이름, 지은이, 그린 이, 출판사)를 만든다.</p> <p>속지, 페이지, 발행년도 등을 쓴다.</p>	<p>-서로의 먹물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p> <p>-그림을 책상위에 펼쳐놓고 한 장의 그림을 선택하여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한다.</p> <p>-연속적으로 다음의 이야기가 되도록 그림의 순서를 정한다.</p> <p>-이야기가 완성되면 그림 속에 적절한 위치에 글을 적는다.</p> <p>-겉 표지를 내용과 어울리도록 구미고 하나의 책을 완성한다.</p>	<p>- 이 야 기 구성이 끝난 후 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구성원의 역할을 분담하여 제작하도록 한다.</p>
<p>정리 및 감상</p>	<p>-협동작품 발표</p> <p>협동작품을 발표하고 감상한다.</p> <p>평가 및 반성</p> <p>다음차시 예고</p>	<p>-구성원의 대표가 이야기책을 읽어준다.</p> <p>서로의 이야기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p> <p>작품감상 기록지 쓰기</p>	

<표>-8 콜라주를 이용한 프로그램

단원	표현	차시	2/3	
주제	친구와 여행			
학습목표	콜라주 기법을 통해 데페이즈망을 사용하여 창의력을 신장시키고 협동작업을 통해 친구를 이해할 수 있다.			
준비물	잡지, 4절지, 풀, 가위			
단계	절차	교수-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학습 과제 제시	-동기유발 여행을 가게되는 동기나 과거에 여행을 갔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 -학습목표제시 -학습활동 안내 개별 학습→집단별 토론하기 →협동작품제작→발표→감상	-수학여행이나 가족끼리의 여행을 친구와 이야기한다. -학습목표 인지	
		전개	개별 학습	-주제파악 '친구와 여행'이라는 주제로 하나의 구체적인 상황을 토론했다 하여 콜라주 하기 4명이 한 조가 되도록 책상을 맞추도록 한다. -재료 준비하기 잡지에서 마음에 드는 페이지를 찢어서 한쪽 옆에 쌓아 놓게 한다.
행동 학습	-집단별 토론하기(4명씩) 친구와 여행을 간다면 가고 싶은 곳이나 여행을 하는 여정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토론하여 소재를 결정하게 한다. 4절지 위에 찢어 놓은 잡지를 놓아 위치 배열, 형태, 색감등			-찢어놓은 잡지의 내용을 보면서 여행 가고 싶은 곳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소재를 결정하고 장소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필요한 잡지의 사진들을 오리고 찢어서 종이에 배열해본

		<p>을 결정한다.</p> <p>-협동작품 제작</p> <p>구성원의 역할을 결정하여 종이를 찢고 가위질을 하여 붙인다.</p> <p>여백이 없도록 정리하고 작품의 의도된 내용을 뒷장에 쓴다.</p> <p>제목을 정하도록 한다.</p>	<p>다.</p> <p>-전체적인 구성이 이루어지면 붙이기 시작한다.</p> <p>-여백이 없도록 정리한다.</p> <p>-여행의 의미를 생각하여 제목을 결정하고 내용과 느낌을 적는다.</p>	<p>등을 고려하여 붙인다.</p>
정리	정리 및 감상	<p>-협동작품 발표</p> <p>완성된 작품을 교실 앞에 전시한다.</p> <p>협동작품의 내용을 발표하고 감상한다.</p> <p>평가 및 반성</p> <p>다음차시 예고</p>	<p>-전시된 다른 조의 작품을 감상한다.</p> <p>작품감상 기록지 쓰기</p>	

<표>-9 입체표현을 이용한 프로그램

단원	입체 표현		차시	3/3
주제	우리 마을			
학습목표	개인적인 공간과 공통의 공간간의 상호조화와 협력의 관계를 이해하고 협동작업을 통해 독창적인 마을을 꾸밀 수 있다.			
준비물	여러 크기의 상자, 칼, 가위, 풀, 글루건, 칼라링 재료(색연필, 사인펜, 파스텔, 크레파스), 하드보드지(2절), 고무찰흙, 꾸미기 재료			
단계	절차	교수-학습 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학습 과제 제시	-동기유발 학생들이 현재 살고 있는 가정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한다. 안전한 장소는 어떠한 장소인지 질문한다. -학습목표제시 -학습활동 안내 개별 학습→협동학습→발표→감상	-가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안전한 장소의 특징들과 자신이 생각하는 안전한 장소에 대해 이야기한다. -학습목표 인지	
		-주제파악 안전한 개인의 집을 완성하고 구성원끼리 어떠한 마을을 만들지 결정하여 조합한다. -표현하기 재활용 상자를 이용하여 안전한 장소의 집을 만들게 한다.	-상자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재료의 특징을 살려 개성적인 집을 만든다.	-기존의 건물의 모습이 아니라 상상의 건물이나 상상의 장소를 만들어보는 것도 가능하다.
전개	행동 학습	-집단별 토론하기(4명씩) 개인의 집에 대해 설명하게 하고 어떠한 마을을 만들 것인가를 토론하게 한다. -공동작품 제작 하드보드지판에 개인의 집	-개인의 집에 대해서 구성원들에게 이야기한다. -어떠한 마을의 모습이 좋을지를 토론하여 결정한다. -하드보드지판에 서로의 집위치를 배치하고 길, 울	-개인의 공간과 공통의 공간 배치에 어떠한 건물이 중심에 오면 좋을지를 생각하도록 조언한다.

		을 조합하고 마을을 만들게 한다.	타리 등 마을에 필요한 다른 건물들을 그리고 이름을 붙인다.	
정리 정리 및 감상	정리 및 감상	-협동작품 발표 및 감상 작품을 발표하고 감상한다. 평가 및 반성	-한 조씩 협동작품에 대해서 발표한다. -다른 사람의 발표를 경청한다. 작품감상 기록지 쓰기	-공동 제작할 때에 구성원들의 의견과 개인의 의견차이는 없었는지, 건물의 크기와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한다.

난화를 이용한 프로그램<표-7>은 먹물 그림 그리기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 표출을 할 수 있으며, 자주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그리게 됨으로써 무의식적 내면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콜라주를 이용한 프로그램<표-8>은 잡지 속에서 현실참여 요소를 발견하고 간접적으로 경험 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또한 콜라주를 미술교육에 도입시킴으로써 여러 매체에 대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매체에 대한 다양한 활용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자신이 표현하려는 것들을 주변의 물체나 사진 등으로 표현하여 자발적인 참여로 흥미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입체를 이용한 프로그램<표-9>는 구조물을 세우고,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공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 집단 활동을 통해서 구조물을 다시 세우고 연결시키고 통제하므로 해서 대인관계형성에 도움이 된다.

위와 같이 다양한 내적표현의 장점을 활용, 대상을 분석하고 그에 적합한 매체와 재료를 결정한다. 그리고 미술활동이 계획되어 매체가 가지는 치료적 장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창의적인 제작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치료적 미술교육의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미술 치료적 기법을 적용한 미술활동은 미술교육에서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많은 교육적 활용 가치가 있다. 단순히 작품 활동을 통해 평가를 받고 끝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작품 활동을 통한 자신의 이해 즉, 미술활동을 통한 자기표현과 승화 작용을 통해 자아 주체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2) 미술치료에서 미술교사의 역할과 학습자의 자세

(1) 미술교사의 역할

미술교육에서 학생들 전체에게 미술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가르치며, 그들의 활동에 대한 객관적이며 미적 가치를 평가하고 미술의 발전적 기능을 단계적으로 지도한다.

로웬펠드는 정확한 답이 있을 수 없는 미술표현 분야에서 지도 과정은 학생이 개별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지각하도록 격려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교사의 역할은 자아발견을 하도록 도와주고 좋은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이스너(Eisner,1933-)는 미술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지도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교사와 학생사이에 형성된 관계이다. 어떤 학생이 문제나 과업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교사가 이해하려면 교사와 학생사이의 친밀감의 형성이나 정직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의 신뢰와 개방의 관계가 형성될 때, 학생들이 그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도 자유롭게 표현하게 된다. 아이스너는 바람직한 관계형성을 위해 학생들이 교육 계획을 세우고 교육과정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수업절차를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교사가 미술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목표와 활동에

관하여 학생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의 반응과 제안을 끌어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뜻한다.

둘째, 미술교사는 학생들에게 교실에서의 전문 미술가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시각예술 작품에 몰두하는 교사를 만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미술교육에서 교사는 미술 분야에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본보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향력 있는 모델로서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제작영역에서 교사가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하는 등 진지하게 작업에 몰두하는 것을 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예술을 향유하며 창조적인 문제를 교사와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다.³³⁾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치료사는 내담자의 치료를 중요시 생각하고, 교사는 학생의 적절한 학습을 중요시 생각한다. 그러므로 치료적 미술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할에서 희망하는 방향은 치료적 미술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겠다.

첫째, 교사는 안내자, 충고자, 코치, 개인 교사 또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학습자의 학습을 돕는 조언자이며 배움을 같이하는 동료학습자로서 교사들은 기법중심의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을 해방시켜 창의적인 과정중심의 수업을 통해 커다란 아이디어들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한다.

둘째, 교사들은 학생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주의 깊게 파악하고 관심사를 추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아동 및 청소년들이 더 적절한 감정표현을 할 수 있거나 자신감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아이디어들을 재형성하게 하고, 창조활동에 도달하게 하여 학생들에게 자기표현의 성취감을 맛보게 한다.

넷째,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다섯째, 학습의 과정에 선택권을 부여하고 주인의식을 갖게 한다.

종합해 보면 치료적 미술교육에서 필요한 부분은 미술치료사의 마음가짐과 태

33) 허경란, 「고등학교 미술교육과 미술교사의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pp20~21

도가 아닌가 싶다. 루빈에 의하면 가장 훌륭한 미술교사는 조형활동을 통하여 학생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적, 정서적, 성장을 증진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라 한다. 청소년에게 미술적 기법이나 숙련을 위한 지도나 평가를 하기보다 그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미술로 표현하는 것과 그러한 과정이 중요시되도록 수업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중요시 생각할 수 있는 교사의 자세가 필요하다.

(2) 학습자의 자세

현행하는 제7차 교육과정은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교육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국제화, 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신장,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 교육 실천, 지역 및 학교 교육 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교육 방법에서의 발상 전환이 필요한 현실이다. 전통적인 도제식 기능중심 교육, 교사의 일방적인 지도 중심적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³⁴⁾

따라서 미술교육도 학습자 중심적이 되어야 하며 교수·학습 활동의 주체가 학생 개개인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학습자 중심적 교수·학습이라고 해서 교사의 역할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 중심적 교수·학습에서의 교사의 역할은 학생이 스스로 지식을 구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자 또는 조력자라고 할 수 있다.

미술교육에 있어서 학습자를 중심으로 하는 학습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34) 전옥순, 「구성주의교육에 기초한 미술과 교수학습에 대한 연구」,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p6

첫째, 학습자의 능력의 차이, 개성의 차이를 인정하는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을 계획한다.

둘째,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셋째, 자기 주도적인 학습 활동이 되도록 한다.

넷째, 학습자와 교사, 학습자와 학습자들 간의 활발한 학습에 대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흥미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치료적 미술교육에서는 위와 같은 교육의 흐름에서 필요한 조언자, 안내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생의 내면세계에서 적절한 경험을 개개인이 자주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제작과정에서는 창작의 즐거움을 통해 스스로 작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치료적 미술교육에서는 미술재료를 선택하고 제작과정을 스스로 주도하여 작품을 완성함으로써 개인적인 성취감, 만족감 등을 느낄 수 있는 학생중심의 수업을 이끌어 갈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이다.

V. 결 론

사회가 급속히 변화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도 그것을 한 학생의 정신적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많은 일들이 교육현장에 일어나고 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교실에서 교사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행동들을 하는 학생들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심리적 갈등과 정서적 불안을 학교의 교육현장으로 흡수하여야 할 시기이다.

본 연구는 미술교육의 개념에서 미술활동이 갖는 치료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 적용에 있어서는 진술한 여러 미술치료 이론과 기법이 종합적으로 응용하였다. 적절한 표현기법과 매체의 선정은 대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이슈에 구체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극대화된 치료적 효과를 갖는다.

또한 목적별로 사용되고 있는 미술치료 프로그램들의 분석으로 치료적 미술 기법과 매체가 기존의 미술활동과는 다른 상징적 의미와 승화된 의미여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은 치료적 미술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정적인 자아 감정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자아상 형성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학교현장의 청소년들이 심리적, 정서적 불안정한 환경과 욕구불만, 학업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등을 발견하고 완화시켜 줄 수 있다.

둘째, 치료적 미술교육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표현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3차시 분량의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하여 제안하였다. 정규 미술교육 과정에서 본 연구의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치료적 미술교육의 창의적 과정을 통해서 작품제작의 만족과 성취감을 느끼고 미

술교과에 대한 흥미유발에 도움이 된다.

셋째, 치료적 미술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치료적 미술교육에서는 교사가 학습을 돕는 안내자, 촉진자, 조언자로서 청소년들의 잠재능력과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다.

넷째, 매체의 표현기법에 따라 제시된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실제 적용 시 교사의 창조적인 노력에 의해 프로그램의 변형이 가능하며 대상에게 더 적합한 과정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조사와 문헌연구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설계를 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실제로 적용하여 객관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한 한계점을 가진다. 그러므로 향후 치료적 미술교육이 교육현장에서 활용되어 학생들의 정서순화에 도움을 주는 교육적 가치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김정희 외 (2003) 「미술교육과 문화」, 학지사

김진숙 (1996) 「예술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중앙적성출판사

정여주 (2003) 「미술치료의 이해-이론과 실제」, 학지사

한국미술치료학회 (1995)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동아문화사

한국미술학회 (2003) 「미술교육의 동향과 전망」, 학지사

<외국문헌>

Arnheim, Rudolf (1995)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역, 미진사

C.G 융 (1986) 「C.G 융 무의식의 분석」 설영환역, 선영사

말키오디 (2001) 「미술치료」 최재영, 김진영(역), 조형교육

루돌프 아른하임 (1995) 「예술심리학」 김재은 역,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칸딘스키 (2000)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권영필역, 열화당

Kandinsky, Wassily (1963) 「점, 선, 면」 차봉희역, 열화당

<논문>

권준범, 「미술활동에 내재된 심리치료 요인에 대한 연구」, 사향미술교육논총
제 10집, 2003

이은적, 「이미지 문명 시대와 미술 이미지의 힘 (예술심리학관점으로 본 미
술교육)」 教育學研究, 2003

전옥순, 「구성주의교육에 기초한 미술과 교수학습에 대한 연구」, 인천교육대
학교 교육대학원, 2001

조윤희, 「미술치료에 대한 인지도조사를 통한 미술치료 활용 프로그램 연
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최재영, 「부적응 아동을 대상으로 한 치료적 미술교육 접근에 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2002

최재영 외, 「유아미술치료」, 수원여자대학, 2002

허경란, 「고등학교 미술교육과 미술교사의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
원, 2003

ABSTRACT

A Study on Art Education Programs for Emotional Purification

- Focusing on Psycho-therapeutic Elements in Art Activities -

Kim, Min-Kyung

Dept.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 University

Art is one of expressions reflecting many of humans. In other words, we express our feelings through art, and communicate an event or a fact of the times in relation with us. In addition, a mode of expression of art is suitable for transmitting emotion, thoughts, and feelings that languages and letters are limited to express. Thus, art has been extended to express our emotion, make us understand exactly what the expressed emotion, and be established as a way of searching our inner side.

People in modern times have suffered psychological conflicts and emotional difficulties in a rapidly-changing society, and the adolescents of schools have expressed their psychological and emotional uneasiness in this situation. That is, it is required for adolescents to have an outlet of self-expression and various forms of ways for their emotional purification. In this sense, art activities

are found to be meaningful as a way of emotional purification through free self-expression.

Creative art activities help encourage humans to express their inner side, to communicate with the outside, and to let their wounds open and cure of them. That is, a therapeutic approach inherent in art activities would be useful in education fields.

The necessity of this study lies in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therapeutic elements inherent in art activities to art teachers. Namely, this study aims to search for the application and direction of art activities for students' emotional purification by analyzing and applying the therapeutic elements.

The introduction states the purpose of study on art education using therapeutic strengths inherent in art activities, and speculates the subject of study, application of art therapy for a student's psychological and emotional purification in art class.

To the main subject, first, the relation of art and emotion was examined to identify the mental aspect of art from a psychoanalytical view, and find the emotional purification aspect of art.

Second, the therapeutic meaning and effectiveness of art activities were searched with a review of the effect of it on emotion, and of therapeutic application of it in art education.

Third, the relation of art education and emotion was identified by applying psycho-therapeutic element to the details of art curriculum, and it was suggested the application of therapeutic art education program to art education fields by developing those programs for emotional purification.

In the conclusion, it has demonstrated that by analyzing art therapy programs, therapeutic art techniques and media have different symbols of meaning and different sublimated meaning from those in the existing art activities. Also, the therapeutic application to art education has been found to help adolescents purify their emotion in a complicated modern society.